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2018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평화문화진지

연결의 선(線), 문화의 축(軸)

유종수 · 김빈
(주)코어건축사사무소

개요

위치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932
용도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	4만 9,830m ²
건축면적	1871,55m ²
연면적	1875,12m ²
규모	지상 2층
높이	20m
주차	11대
건폐율	3.76%
용적률	3.76%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
외부마감	고열처리목재패널, 콘크리트폴리싱
내부마감	콘크리트폴리싱, 석고보드 위 도장
설계	유종수, 김빈
설계담당	최영래, 조아란, 강희라, 박윤정
구조설계	SDM구조기술사사무소
기계설계	형림설비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주)극동문화전기설계
시공	씨엠글로벌건설(주)
설계기간	2015. 10. 15.~2016. 11. 23.
시공기간	2016. 12. 14.~2017. 11. 6.
건축주	도봉구청



시아를 가리지 않고 조망되는 도봉산

평화문화진지가 들어선 주변은
서울의 끝자락이면서
창포원, 수락산, 도봉산, 중랑천 등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현재의 전망대 높이만 올라가도
산과 물의 풍광을 즐기며,
사계절 빼어난 자연경관을 전망할 수 있다.



◎ 평화정



◎ 평화정



◎ 이랑기



◎ 평화문화단지

상 전망대에서 바라본 평화문화단지 상부
 중 하늘에서 본 평화문화단지
 하 과거 대전차방호시설의 모습



아카이브 기획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



© 정호철



© 정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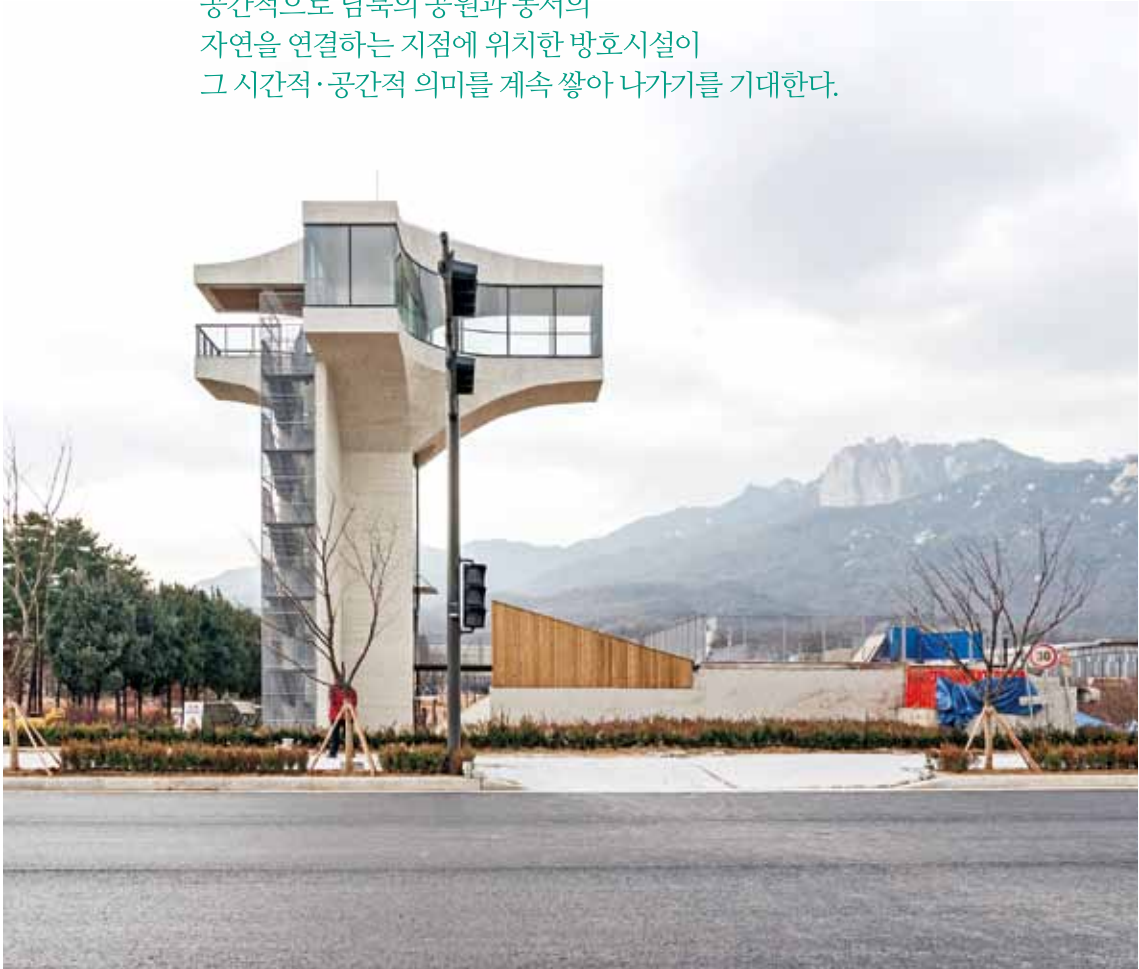


© 정호철

상 아카이브 기획 전시가 이루어지는 예술동
하·좌 옛 대전차방호시설을 새롭게 조성한 문화창작 공간
하·우 옛 대전차방호시설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한 평화문화진지

평화문화진지는 개장 1년 만에 6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다녀갔으며 각종 문화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지점,
공간적으로 남북의 공원과 동서의
자연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방호시설이
그 시간적·공간적 의미를 계속 쌓아 나가기를 기대한다.

© 2014
평화문화진지



평화문화진지 전망대

의정부와 포천 그리고 일동을 포함한 서울의 서북부를 지나면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여러 군사용 탱크 저지시설들의 하나로 아파트들이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부지’의 그리 만만치 않은 문화사적 가치 때문에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현재는 시민아파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3층(1층의 대피 및 방어용 층을 포함하면 4층)의 건물은 196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70년에 완공되었다. 1개 층 6가구의 주거가 있고, 모두 5개 동의 건물이 있으니 총 90가구를 수용하는 아파트 건물들. 원래는 군인아파트로 지어져서 군인들이 거주하도록, 그리고 유사시에 1층으로 내려와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한 모양이다.

옥상에 올라보면 시야를 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 도봉산과 약간 멀리 북한산도 그대로 조망되고, 중랑천 쪽으로는 수락산도 그대로 조망된다.

“공간의 문화사적 가치: 도봉시민아파트” * 中

아파트와 벙커

평화문화진지(대전차방호시설)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 이동경로 상 군사적 요충지였던 곳에 지어진 군사시설이다. 1층은 방호시설, 2층부터 4층까지 3개 층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초기에는 군인주택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군사시설임을 감추기 위해 주거공간으로 방호시설을 위장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전시의 방어시설과 평시의 주거공간. 상반된 성격의 공간으로 전시에 유효한 시설과 평시에 필요한 시설이 하나의 구조물로 건립된 것은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현황

대지 현황은 동쪽으로 수락산과 중랑천을, 서쪽으로 도봉산을 면하고 있다. 남쪽으로 2009년에 개장한 서울창포원이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 최근 조성된 다락원체육공원이 있다.

서쪽에 위치한 지하철 1·7호선 도봉산역과 동쪽의 마들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마들로가 의정부까지 연장되었고 이 신설 도로 공사로 인해 기존 건물의 동측 일부가 철거되었다.

* 진양교(1999), “공간의 문화사적 가치: 도봉시민아파트”, 『문화도시 문화복지』 6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원기



©황효철



©평화문화진지



상 하늘에서 본 평화문화진지
중 과거 대전차방호시설의 모습
하 시야를 가리지 않고 조망되는 도봉산

평화문화진지는 10여 년 전에 완공된 서울창포원과 이번에 새로이 만들어진 다락원체육공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분단과 이념 갈등의 역사를 담아 전달하는 장소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5개의 벙커에서 5개의 중정을 가지는 단일화된 시민 공간으로

방호시설은 총 5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각 동은 내부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동서 방향으로 약 250m에 이르렀다. 각 동은 가로 40m와 세로 14m의 규모로, 'ㄷ'자 형태의 대전차 작전 공간(전차 위장 공간과 장병의 사격 공간)과 나머지의 지원시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획의 큰 방향은 'ㄷ'자의 작전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워 내고 전면에 새로운 공간을 신설하여 중정을 가지는 'ㅁ'자의 건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 중정 부분은 군사시설인 작전 공간과 문화시설인 창작 공간 사이에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과거에는 병사들의 휴식·업무 공간이었고 앞으로는 입주 예술작가나 방문객의 작업·휴식 공간이 될 곳이었다. 기존 시설과 신축 시설의 사이에 위치하여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내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각 동 사이에는 편의시설인 화장실·기계실 등을 배치하여 부족한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였다.

지붕에 조성된 옥상 휴게 공간이 1동부터 5동까지 연결되고, 건물의 내부 공간이 2동과 3동 사이의 지하 연결 통로(공사 중 발견됨)를 통해 연속되어 5개 동이 하나로 연결되는 250m 길이의 단일 건축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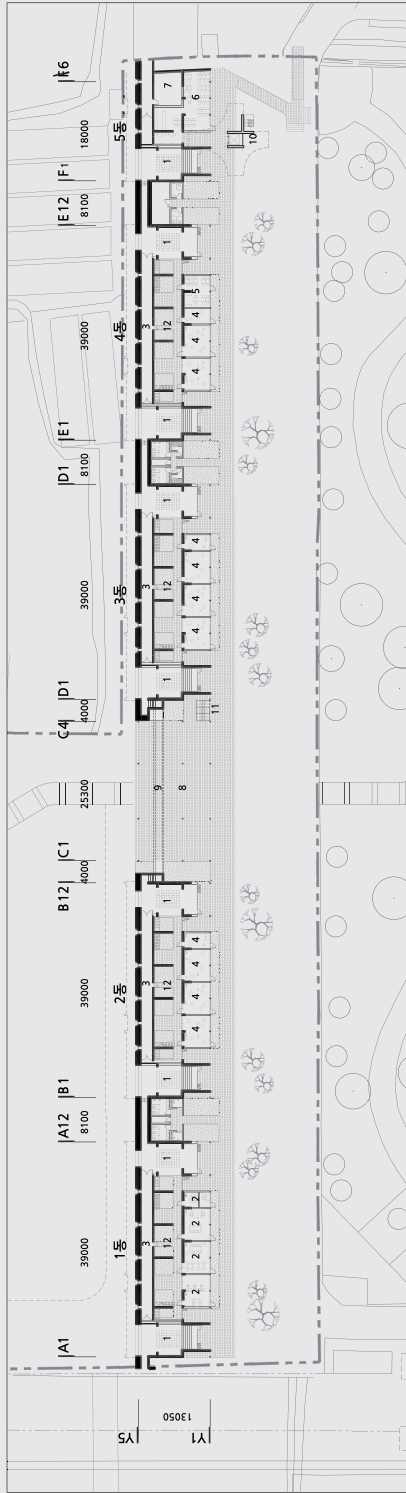
여기에 더해 5동의 지붕에서 신설 도로의 보행로로 연결되는 계단을 계획하고, 내부에는 신설 도로 하부를 통해 중랑천으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군사시설)가 신설되어 결과적으로 중랑천부터 서쪽의 1동까지 동선이 내외부로 연결되었다.

'ㄷ'자의 기존 시설 부분은 전시·강의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신축되는 시설의 1동에는 지원 시설인 사무실과 관리실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2동부터 4동에는 예술작가를 위한 공방이, 5동에는 레스토랑이 배치되었다. 5동의 전면에는 높이 20m의 전망대가 신설되어 주변의 공원과 자연환경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원효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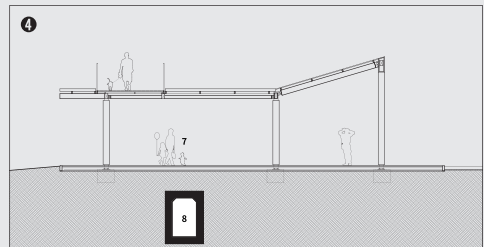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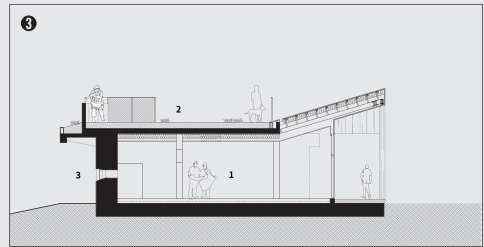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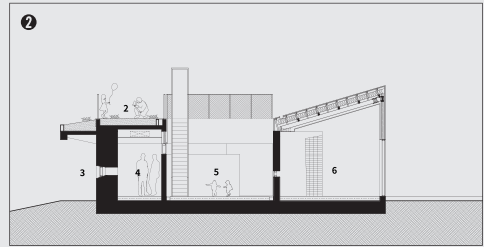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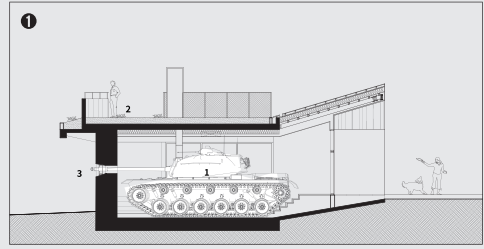


상 아카이브 기획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
중 아카이브 기획 전시가 이루어지는 예술동
하 옛 대전차방호시설을 새롭게 조성한 문화창작 공간



1F 평면도

- 1 다목적홀
- 2 사무실
- 3 전시복도
- 4 공방
- 5 카페테리아
- 6 레스토랑
- 7 군지휘소
- 8 평화광장
- 9 지하연결통로
- 10 전망대
- 11 베를린장벽
- 12 중정



주요 구획 종단면도

0 1 2 5 10(m)

- 1 다목적홀
- 2 옥상정원
- 3 방호벽 (T=1,000mm)
- 4 전시복도
- 5 중정
- 6 사무실
- 7 평화광장
- 8 지하연결통로

구조의 기본 개념

기존 건물의 지붕 슬래브는 안전성의 문제로 철거되고, 남을 수 있는 보 등은 최대한 보존해 유지하였다. 새로이 만들어져야 하는 전면 공방의 구조는 기존의 방호시설 외벽 일부를 이용하고 중목구조로 계획되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최종적으로는 경량 철골 구조로 시공되고 마감만 설계안대로 목재 마감으로 완료하였다.

잘려 나간 벙커

평화문화진지가 계획되는 동시에 서울에서 의정부로 연결되는 도로가 진지 바로 옆으로 계획됨에 따라 기존 벙커의 다섯 번째 건물 중 2분의 1 정도가 잘려 나가야 하였다. 그리고 도로 하부 중랑천으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계획이 동시에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잘려 나간 벙커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켰으며 신설된 보도에서 진지 지붕으로 연결하여 시민들이 옥상 산책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생긴 전망대

공모전 당선 이후 발주처, 군부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망대가 추가되었다. 처음에는 전시(戰時)에는 군부대의 관측소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나, 군부대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해 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시민이 이용하는 전망 시설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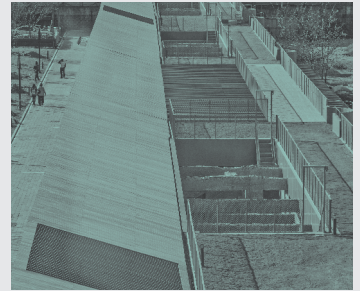
평화문화진지가 들어선 주변은 서울의 끝자락이면서 창포원, 수락산, 도봉산, 중랑천 등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현재의 전망대 높이만 올라가도 산과 물의 풍광을 즐기며, 사계절 빼어난 자연경관을 전망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연결점

평화문화진지는 개장 1년 만에 6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다녀갔으며 각종 문화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넉넉하지 않은 예산과 공기 등 공공 건축 현장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관계자들의 의지와 노력, 헌신 덕분이었다.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지점, 공간적으로 남북의 공원(창포원-체육공원)과 동서의 자연(수락산-중랑천-도봉산)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방호시설이 그 시간적·공간적 의미를 계속 쌓아나가기를 기대한다.

© 황효철



상 옛 대전차방호시설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한 평화문화진지
중 전망대에서 바라본 평화문화진지 상부
하 평화문화진지 전망대